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9호 【우계 제25362호】 주체 105 (2016)년 8월 6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 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참가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수호의 최전방에서 전결단결의 성세, 방패가 되어 당과 혁명을 결사보위하고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공헌한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외참가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군대중운동사상과 평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군위부대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전군의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련대로, 전화의 군위부대들로 만드는 데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홍콩 방송 위성 TV 방송, 일본의 코도통신, 이란의 프레스 TV 방송, 세네갈 신문 《이 모 볼레드》, 기네 국내, 국제 방송, 7개 민족어 방송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 위원회, 민주통고주체사상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인민군 제810군부대장이 어분 사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올렸다.

만민이 우러르고 따르는 불세출의 위인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 열렬히 칭송

탁월한 사상과 로속하고 세련된 행동으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김정은 동지께서 야망으로 특출한 정치신력과 교묘한 역량을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다.

수리아 데마스프코대학 정치학부 장차장 세메르 발들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 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 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흡 7련대칭호쟁취운동 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0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당이 정해준 돌격침로따라 전속으로 내달리는 대비약의 기상

러명거리건설장에서 살림집내외부미장 78%계선 돌파, 창문달기 및 내부공사성과 계속 확대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피하는 심장마다 새기고 선군조선의 불패의 기상을 세계앞에 더욱 힘있게 과시할 인력으로 총동원, 총배치하고 있는 러명거리건설자들이 200일 전투의 허무허무 높은 공산실적으로 이어가며 완공의 날을 앞당기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미 전민적인 살림집들의 창조공사가 전부 끝난 건설장에서는 내외부미장공사가 계속된 단원들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지금 러명거리건설장장으로 삼림집들의 허무허무 미장실적은 4만여㎡, 최고 6만여㎡로서 미려하고파괴자거리건설때보다 평균 2배 이상, 최고 3배이상이나 되며 4 일현재까지의 내외부미장실적은 전체 미장공사량의 78%계선을 넘어섰다. 뿐만아니라 방수미장, 장식미장을 비롯한 내부공사실적이 계속 오르고 창문달기가 적극 추진되고있다.

지금 현일 이곳을 찾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분초가 다르게 이체로와지는 러명거리건설장의 모습을 바라보며 머지않아 다가올 완공의 시각을 그려보고있으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박을 자력자강의 힘으로 후려잡고 나가게 나아가는 조선의 역적 기상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다시한번 가슴깊이 새겨안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열렬히나 불붙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우리 당의 원대한 뜻을 높이

받들고 러명거리건설지휘부에서는 건설자들의 심장에 배입, 배시각 격동의 불을 타는 화선적정지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모든 시공단위에서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벌여주고 조직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뿐만아니라 지역자강의 정신으로 내부에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벌여주고 시공단위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러명거리건설에서 기어이 만리마시의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을 창조해나갈 건설자들의 신념과 의지, 혁명적열의를 대변한 불은 기발함이 창조높이 휘날리고 그들을 만리마속도창조로 부르는 전두속보관들이 건설장의 곳곳에 준비하게 세워졌다. 집중포화, 면속포화, 명중포화의 위력을 날김없이 과시하는 화선선들이 계속 줄기차게 벌어지는 속에 공사장에서는 살림집들의 내외부미장, 방수미장, 장식미장, 창문달기, 타일붙이기 등 모든 공사가 밀체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이미 내외부미장공사를 전부 결속한 모란55-1-가, 나호동건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이 현년혁일, 만민보종의 금발을 심장마다 새겨안고 앞선 기술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방수미장, 장식미장 등 마감공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히 이곳 부대에서는 모든 건설자들이 공산실적이 부단히 오르는데 맞게 시공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함으로써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군 100층에 달하는 8개 대성의 살림집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군 건설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오직 승리만을 떨치는 골합없는 공격적인 혁명정신으로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을 세계 앞으로 퍼뜨리고있다. 부대지휘관들은 건설경험이 풍부한 어느 한 산하부대의 고급기능공들을 다른 여러 산하부대에 합력적으로 배속시켜 모든 군인건설자들의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짜고드는 한편 부대별사회주의경쟁도 뜨겁게 벌어지고있다.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이고있다.

한편 부대에서는 얼마전부터 또다시 새로 맡은 모란55-59호동 35층살림집의 기초공사와 기초콘크리트거기틀을 외따닥 붙여나가는 시대의 기념비와도 같이 융성한 모습을 확인해 드려낸 특색있는 70층살림집을 기쁜 마음으로 그려보고있다.

조선인민군 유성현소속부대, 금호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이미 대성53-73호동, 대성51-43호동의 50층과 55층살림집을 완공을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공사에서 현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러명거리건설을 끝 사회주의수호선으로, 자기들이 맡은 살림집건설장을 적들과 총구를 마주하고있는 조국의 최전연고지와도 같이 마음속에서 새겨안은 이곳 부대들의 군인건설자들은 《조국보위》의 정신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포성을 힘차게 울리고있다. 자기들이 완성해가는 살림집들의 한층한층이 단순한 건설물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에게는

3대혁명전시관장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3대혁명전시관장립 70돐 기념보고회가 5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동지와 3대혁명전시관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3대혁명전시관 종업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최태복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 35(1948)년 8월 6일 조국해방 1주년기념 민주건설전람회장을 찾으신 때로부터 전시관을 수립하여 현지도하시면서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 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식의 독특한 전시관에 대해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3대혁명전시관에 10여차례 명동의 자욱을 새기시면서 전시행성과 방방, 참관사업을 개선할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전시관이 인민들이 즐겨찾는 전망장소, 중요한 교양거점으로 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겠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3대혁명전시관이 창립후 지난 70년 동안 민주건설세력인들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서 자랑찬 발전을 견출 걸어오면서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시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석고상들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 사진뿐만, 명세들을 부군관들에게 정중히 모시였으며 주체사상으로작전시관을 훌륭히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상이론적업적을 깊이 있게 해설선전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장사들의 자질을 높이고 학술전성과 전시행적, 방법을 혁신하여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매 단계마다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낸 기계설비들과 제품들, 성과자료를 배정없이 전시하고 해설선전사업을 심화시켜 우리 공화국의 발전면모를 적극 선전하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시관에서는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첨단 및 실용과학기술을 연구개발과 지적제품들에 대한 전시와 보급, 교류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국내, 국제전람회들을 보장하여 과학기술식보급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3대혁명전시관의 종업원들과 일군들이 일면단심당과 수령을 만드는 배움같은 총정파 자력자강의 정신을 지니고 혁명초소를 성실하게 지켜왔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총장 운영실

의 기념보고에 이어 부총장 한홍기, 판장 리영춘, 책임강사 김경숙이 모문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전시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장사들의 자질을 높이고 학술전성과 전시행적, 방법을 혁신하여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매 단계마다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낸 기계설비들과 제품들, 성과자료를 배정없이 전시하고 해설선전사업을 심화시켜 우리 공화국의 발전면모를 적극 선전하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각종 전시회, 전람회들을 통한 첨단기술 및 지적제품 교류사업을 활성화하는 것과 함께 참관사업을 활발히 조직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힘있게 추동하며 건물들과 전시품들에 대한 정상유지, 정상보수, 정상관리를 짜고 들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종업원들이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본뜻이 준비하며 3대혁명로선의 전철한 운호자,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어 전시관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데에 사활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현지도보반

